

## “트럼프, 교회 보호받을 생태계 만들어줄 것”

### 빌드업코리아 김민아 대표 분석

트럼프 2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선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미국에선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컨트롤 타워’ 없이 미국의 리더십 교체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의 역할도 막중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해 빌드업코리아 컨퍼런스를 열고 미국 대통령 선거 중 트럼프 캠프에서 활동한 청년 리더 김민아(엠킴) 빌드업코리아 대표에게, 미국 트럼프 시대 변화와 대한민국·한국교회의 역할을 질문했다.

김민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지금 전 세계가 많이 긴장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시절 난무했던 불법들이 다시 사그라



김민아 대표가 지난 2023년 빌드업코리아 컨퍼런스에서 강연하고 있다.

지고, 합법적·합리적·도덕적 정책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태”라며 “미국은 코로나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 수많은 정부 지출, 매장 에너지 개발 취소로 인한 에너지 해의 의존도 상승 등 물가 상승

과 경제적 손실이 많았다. 트럼프 집권 후 경제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줄이면 기름값을 비롯해 생필품 가격들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대표는 “트럼프의 속내를 잘 읽어야 한다. 그는 정치적 협상이 아닌 비즈니스적 협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부르고 보는 성향이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트럼프 1기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달랐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리더가 얼마나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가치를 함께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 트럼프의 반응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보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준비해야 방위비 인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주게 할지를 연구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김정은이나 시진핑, 푸틴에 대해 ‘친구’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그의 협상 방식이다. 친해지고 같이 식사할 사이가 되면, 날카로운 공격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라고 실

명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로 전 세계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것(Make America Great Again, MAGA)은, 오히려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전 세계에서 도발이 빈번해지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였다. 당시 철수는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그로 인해 전 세계가 ‘미국이 연약해졌다’고 느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이 일어난 것”이라며 “역설적이지만 미국이 안전하고 강한 나라가 돼야, 전 세계가 평화와 질서를 되찾을 것이다. 큰 자유 국가가 자리를 바로 잡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전 세계 질서가 잡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대용 기자 → 2면에서 계속

## 주님의영광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임직식 거행



1월 19일(주일)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는 교회 창립 26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 임직식을 진행했다. 이번 임직식에서는 피택장로에 박홍범, 임용택, 안수집사에 남성원, 윤석원, 이현석, 권사에 김영주, 두형욱, 이소운, 장선아, 최혜경이 임직했다. ©gjc.org

## 대통령 취임식 뒤흔든 교계 지도자들의 기도

‘위대한 미국, 하나의 미국’을 향한 강력한 도전

1월 20일 도널드 J.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흥미롭게도 이번 취임식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데이(Martin Luther King Jr. Day)’와 같은 날 열려, 기존 취임식의 전통적 의미에 시민권 운동의 역사적 상징성까지 더해졌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늘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기도’가 이번에도 주요 순서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수의 성직자만 초청하는 기존 관행을 넘어, 5명의 종교 지도자를 기도자로 지명했다.

기도로 열리는 취임식의 역사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는 일종의 전통이자 상징이다. 대체로 신임 대통령이 2~4명의 종교 지도자를 선정해 invocation(개회 기도)과 benediction(폐회 기도)을 맡겨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티모시 돌런(Timothy Dolan) 추기경(뉴욕 대교구)과 프랭클린 그레이엄(Franklin Graham) 목사(복음주의 지도자)에게 개회 기도를, 그리고 아리 버먼(Ari Berman) 랍비(예시바대 총장), 로렌조 수웰(Lorenzo Sewell) 목사(디트로이트 180 Church), 프랭크 맨(Frank

Mann) 신부(뉴욕 교구)에게 폐회 기도를 각각 맡겼다. 한 자리에 5명의 성직자가 기도로 참여하는 구성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취임식(2017)과 2001년 조지 W. 부시 취임식 등에서 기도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레이엄 목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었다”며, 대통령의 생존(2024년 암살 시도 미수)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았다. 티모시 돌런 추기경 역시 2017년에 이어 다시 초청되었다. 이창한 기자 → 6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러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지금부터 **개어 기도** 할 때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  
**주는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합3:2)**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LA에 하나님의 비사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부르짖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미국을 위해**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LA를 위해**

**LA** 2025.1.31(금) 9:00AM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OC** 2025.1.31(금) 7:00PM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주관: 미주 성서화 운동본부, 다민족연합기도운동, 새생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OC 교협 문의: 강태광 목사 (323. 578. 7933, 조진웅 목사 (714. 686. 1441)  
 주최: 남가주 교협, 각지역 목사회, 각지역 여성목사회, 각지역 장로회, 청교도기도동역자 기도회, JAMA, 남가주 중보기도팀연합기도대회,미주한인교목회, 세기모서부지부, 월드쉐어USA, 국제교육선교법인 코레아(COREA),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후원: 이승만대통령 기념사업회, 월남전참전전우회, CA월참전우회 각 기독교인(기독일보, 미주크리스천,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위클리, 크리스천헤럴드, 미주복음방송, 사람과 사회, 우리 방송)



#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 문석호 목사의 사도행전 주해 및 교훈집 『그 도(道)의 사람들』 출간

문석호 교수의 사도행전 주해 및 교훈집 『그 도(道)의 사람들』 출판 감사예배 및 세미나가 19일(주일) 오후 4시 30분 뉴크리에이션교회 (김관중 목사)에서 개최됐다.

서오석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1부 감사예배에서 백현 목사(새생명선교교회)의 기도에도 이어 지윤성 목사(안디옥장로교회)가 ‘열정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로마서 9:1-3)’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윤성원 목사(전 미주 총신대학 학장)가 축사했다.

문 교수는 사도행전을 주해한 이유와 현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했다.

### 현대 교회의 위기와 사도행전

그는 또 현대 교회의 위기를 언급하며, 기존의 교회 형태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은 교회를 지었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대가 아니다”라면서, 사도행전 초기 교회의 가장 중심 모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임에 대해

말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이 집 저 집 흠어져서 모였으며, 오늘날처럼 큰 교회당 중심이 아니었다”라며, 현대 교회 역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본질에 충실한 소규모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한국 교회가 유럽과 미국 교회가 겪었던 쇠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하며, 젊은 목회자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교수는 사도행전을 주해한 이유가 선교적 비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기록된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과 문화에 맞는 현대판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는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서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언어로 번역된



문석호 교수의 사도행전 주해 및 교훈집 『그 도(道)의 사람들』 출판 감사예배 및 세미나가 19일 오후 4시 30분에 개최됐다.

사도행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 사도행전 주해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현대 설교자들에게 기록된 말씀(그라피)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을 넘어, 이 시대에 필요한 살아있는 말씀(레마)을 선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현대 설교자들이 케리그마(복음 선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단순히 성경을 읊조리거나 과거를 재현하는 데 그

치지 않고, 오늘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석호 목사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자연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며 신앙과 철학, 과학적 사고를 융합하는 연구와 실천적 사역에 헌신해 왔다.

1952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총신대, 연세대, 오하이오주립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Th.D.)에

서 철학과 신학을 연구하며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총신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7년부터 뉴욕호신장로교회에서 15년간 목회했다. 현재는 미국 조지아주의 베들레헴에서 연구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이날, 축사에서 윤성원 목사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록하라’는 명령에 주목하며, 기록이 신앙의 중요한 기초임을 설명했다. 그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된 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다”라며 기록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어 그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셨고, 시나산에서 주신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에 기록하셨다”라며, 기록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기억하게 하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윤 목사는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와 목회에 가장 중요한 교본’이라며, 문 목사가 이를 주석으로 남긴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토마스 멩 기자

### →1면 기사 <“트럼프, 교회 보호...”에 이어서

미국에서 바라본 트럼프의 당선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은 지난 4년간 깨어난 국민들이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켜 왔다. 바이든 정부의 비기독교·반기독교 정책을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나 정부를 믿기보다 우리가 먼저 깨어 일어나자’는 무브먼트가 생겼고,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라며 “우리도 미국처럼 국민들이 먼저 자유의 가치를 들고 깨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에 대한 미국 기독교계의 여론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해리스·바이든 후보와 비교하면, 트럼프가 미국 기독교와 신앙인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지난 4년간 민주당은 반기독교 정책

들만 골라서 자신들의 노선으로 내걸었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이슈만 봐도 알 수 있다. 반면 공화당에는 일단 크리스천들이 많고, 그들의 보수주의 자체가 기독교와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에 좀 더 교회를 보호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2기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이슈와 관련해,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은 불법이라고 칭할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이슈에서 교회가 최대한 보호받을 만한 생태계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그러나 낙태는 굉장히 논쟁적(controversial) 이슈이다. 크리스천들도 ‘강간으로 생긴 아이는 어떻게 하나? 낙태를 해도 되나?’ 등을 놓고 논쟁하듯, 여기서 의견이 다소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관되

게 트럼프를 지지해 온 이유로는 “일단 주류 미디어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류 미디어에서는 트럼프에 대해 부정적 보도만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였다. 당시 선생님은 늘 먼저 의견을 제시한 후, ‘이 의견을 비판해 봐’ 하고 저를 훈련시켰다. 이런 훈련을 통해 항상 ‘모든 정보가 100% 옳바르거나 진실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민아 대표는 “주류 미디어는 트럼프를 욕하고 바이든·해리스를 치켜세웠지만, 저는 ‘그것이 굉장히 도덕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다’고 느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해 더 깊이 보게 됐고, 그의 모든 연설과 이야기 전체를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주류 미디어들을 주로 인용

하기 때문에 편향된 뉴스만 볼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찾자 노력했기에 미국 여론이 점점 트럼프 쪽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흔들리지 않고 그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나 당부로는 “많은 미국 크리스천들이 지난 4년간 극단적 반기독교·반성경적 정책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기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교회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한국도 미국처럼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 우리도 지금 혼란스럽고 어두운 상황들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과 크리스천들이 깨어나고 있다. 이때 교회도 함께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여기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할 때,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와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나 한국에서 다음세대 무브먼트를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있다. 다음세대는 학교에서 반기독교적 이야기만 듣고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다음세대가 생각보다 많다”며 “그럴 때 교회가 몸을 사릴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성경적 입장을 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레스 왕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민선 기자

세리토스선교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 말씀집회 2월 7일(금) 오후 7:30, 8일(토) 오전 6:00, 9일(주일) 12부 예배
- 메시야연주회 2월 8일(토) 오후 4:30
- 송거명대미 2월 16일(주일) 오후 4:00
- 찬양집회 2월 28일(금) 오후 7:00

\*온라인 예배: 1월 30일(목) 오후 7:00

세리토스선교교회  
12413 E 195th St, Camarillo, CA 90701

## 세리토스 선교교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세리토스 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가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창립을 기념해 네 가지 행사를 준비했다.

첫 행사는 말씀집회로, 손경일

목사(새누리교회)가 2월 7일(금) 오후 7:30, 2월 8일(토) 오전 6시, 2월 9일(주일) 1,2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다.

두번째 행사는 2월 8일(토) 오후

4:30에 메시아 연주회를 갖는다.

2월 16일(주일) 오후 4시에는 송거명대미를 진행하며, 2월 28일(금) 오후 7시에 찬양집회를 준비했다.

이번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손경일 목사는 2011년 마운틴 뷰에 소재한 새누리교회에 부임해, 청년 사역의 부흥을 이끌었다.

김민선 기자

# 기독교일보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변화와 창조의 주역 월드미션대학교

##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공부한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방식

미국 ATS 인가 프로그램

온라인 100% 트랙

**학위과정별 전공**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찬양과예배 전공), 크리스천상담코칭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코칭

석박사통합과정 | 신학 전공, 음악학 전공, 예배학 전공, 상담학 전공, 리더십과코칭 전공

박사과정 | 목회학, 음악연주학, 예배학, 실천신학(상담전공, 코칭전공, 목회와선교 전공)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문의: wmuinfo@wmu.edu | www.wmu.edu

홈페이지 QR



# “영적 소수의 사명”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20주년

##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유진소 목사 설교 "영적인 소수"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돌아보며,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다짐하는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다. 예배는 지난 19일 오후 3시에 열렸으며, 임직식과 20주년 화보 발간 감사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예배에는 ANC 형제교회(선랜드 ANC, 인랜드 ANC, 샌안토니오 ANC, ANC 기쁨의교회)와 베이커스필드 지역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해 20주년을 축하하며 귀한 축사를 전했다.

특히, 유진소 목사(부산 호산나교회 담임)가 일일부흥회와 임직예배 설교를 맡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특별한 은혜를 선사했다.

박성호 목사(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담임)는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며, “형제교회와 지역 목회자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태형 목사(ANC 온누리교회 담임)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이커스필드 교회에 허락하신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돌아보며,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다짐하는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다.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신다”며, “앞으로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윤창렬 목사(인랜드 ANC 온누리교회 담임)는 “20주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다. 베이커스필드 ANC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지역과 성도를 아름답게 섬기며 생명이 살아 있는 교회로 성장해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는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

했다. 임직자를 대표해 인사한 김범 집사는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큰 부담을 느끼지만,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임직식에서는 오재현 장로의 임직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임직 서약, 안수기도, 임직 선포 순서가 이어졌다. 김범, 김경원 씨가 시무안수집사로, 윤인자 씨가 명예권사로 임직했다.

이어진 20주년 화보 발간 감사식

에서는 정창근 장로(편집위원장)가 화보 발행 경과를 보고하며, 편집팀을 소개했다. 축사에는 권재일 장로(ANC 형제교회 담임)와 김용선 장로(샌안토니오 ANC 온누리교회)가 참여해 2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유진소 목사 “영적인 소수” 설교 계시록 3:7-13을 본문으로 “영적인 소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유진소 목사는 “역사학자 토인비는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창조적 소수라

했다. 교회 본질 역시 이러한 영적 소수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유 목사는 “소아시아의 빌라델비아교회는 숫자도 작고 구성원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지킴으로써 그 시대 사회의 영적 세계를 좌우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영적 중심 역할을 감당했고, 이 영적 소수 덕분에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은 영적 소수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엔진을 돌리는 키를 주셨다”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다. 영적 소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정체성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설교를 마치며 “영적 정체성을 가진 영적 소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자”고 권면했다.

예배는 박성호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날 임직식에서는 CRC한인사역 디렉터인 최태석 목사의 권면과 Mike Ostheimer (Calvary Chapel 담임) 목사의 축사도 있었다.

조셉 리 기자

# 책으로 담은, 시니어 삼형제의 800킬로 순례길 도전

## 이흥주 장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출판 기념 예배

시니어 세 형제가 남프랑스 썬장에서 스페인 북서부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800킬로 미터 순례를 완료했다.

2022년 8월 26일 피레네 산맥 프랑스랭 썬장(St. Jean)에서 시작된 순례의 발걸음은 프랑스 오리송, 스페인의 네 주(나바라, 라 리오하, 가스피야 이 레온, 갈리시아)를 거쳐, 9월 29일 예수님의 사촌, 야고보의 시신이 묻혀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산티아고 대성당에서 그 마침표를 찍었다.

형제들과 총 35일간의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흥주 장로는, 산티아고 순례 과정에서 얻은 영적 체험들과 단상들을 모아 책으로 출판했다.

1월 20일(월) 오후 3시 나성영락교회 영어부 2층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Santiago de Compos-

tele> 출판 기념 예배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인사와 식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김경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이 순례여행의 세 주인공 중의 한 명인 이성주 목사가 “생전에 가야할 아름다운 순례지”(약 2:14-18)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순례의 여정에 대해 나누었다.

“썬장에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이 800 킬로미터로 30일~40일 정도 걸린다. 중간에 레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산티아고까지 25일, 일주일 코스로는 사리아(Sarria)라는 곳에서 출발하는 여정이 있다. 1200년 동안 길이 닳여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목가적이다. 스페인은 경비가 저렴하고, 1200년 동안 다듬어진 순례의 길이 있다.”

남가주 장로성가단의 축가에 이어 정요한 목사(전 크리스천헤럴드 TV 사장)와 김도림 장로(전 남가주장로성가단 단장)가 축사했다.



지난 1월 20일(월) 오후 3시 나성영락교회 영어부 2층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출판 기념 예배가 있었다. ©기독일보

정요한 목사는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며, 이 형제들의 신앙에 대해 간증했다.

“이성주 목사님은 성경에도 밝지만, 성지순례 전문가이다. 성지순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셨다. 기록으로 남긴다는 그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이흥주 장로님은 성경필사를 하셔서 많은 이

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셨다.”

김도림 장로는 세 형제의 삶을 통해, 인생의 성공은 속도가 아닌 방향에 있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증거했다.

“인생의 성공은 속도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다는 말이 있다. 이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평생을 사셨다. 이런 분들의 모

습을 보면서 ‘인생은 속도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형제분들이 선교 보고서를 저에게 보내왔다. 저는 깜짝 놀랐다. 정말 보석 같은 값진 삶을 살아오셨구나. 형제분들은 20여 개국에서 선교했다. 베트남에 16개 교회를 개척하고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등에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다. 장애인 선교는 물론이고 군 선교, 장학생 지원, 2개의 신학교 설립했다. 형제들이 뜻과 힘을 합하여 놀라운 결실을 만들었다.”

“선교는 많은 곳에서 인고의 과정을 겪어낸 후에 훌륭한 결과를 낳게 된다. 선교의 꽃을 피우기까지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까. 시편 1편이, 4대째 신앙을 이어온 이 가문에 걸맞는 말씀이라 생각한다. 보석같이 귀한 시간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이 분들만이 할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이었다.”

주디 한 기자

**기독일보**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www.ptsu.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개강일 : 2025년 01월 27일

“BIG JOURNEYS BEGIN WITH SMALL STEPS”

**학사과정**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석사과정**

목회학, 목회학 원목교칭집중과정, 목회학 교칭집중과정, 선교학, 중국어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코칭학, English M.Div.

**박사과정**

목회학, 선교학, 선교학 철학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562.926.1023 (EXT 300)

- Cal Grant와 Pell Grant 학자금 지원
- 현역 및 재향군인 학자금 및 재정지원
-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 혜택



강훈 기자의 교회 탐방

세월을 지나며 더 단단해진 나침반교회

지난 2024년 12월 29일 오펜지 카운티 교회 협회(이하 OC교협) 회장 이취임식에서 신임 OC교협 이사장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는 인사말에서 나침반교회의 회복을 알렸다. "나침반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나침반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OC 교협은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라며 울먹였고, 그간의 사정을 아는 많은 목회자가 눈물을 흘렸다.

의 리더십은 성도들을 단단히 묶어 주었고, 성도들도 묵묵히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겼다.

나침반교회 민경엽 담임 목사는 따뜻한 목회자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예배당을 누비며 인사를 나누기에 바쁘다. 환자도 많고 출타자도 많은 시기에 안부를 묻고 인사 나누는 성도, 확인해야 할 성도가 많은 지 넓은 예배당을 몇 번씩 다니며 인사를 나눈다. 예배는 뜨거웠다. 성도를 향한 애정이 가득한 민 목사의 설교에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 아멘으로 화답했다.

민경엽 목사는 현재 나침반교회와 성도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다. 모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지만 민 목사에게 나침반교회 성도는 특별하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침반교회.

불어닥친 환란의 바람은 잔혹했다. 그 잔혹한 눈물의 세월의 강을 담임 목사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건넜다. 나침반교회는 이 세월을 지나며

더 단단해지고 더 서로를 사랑하는 단단한 교회가 되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나침반교회는 많은 부분 회복했고 성장했다. 지난 12일 주일에 150여 명의 성도가 서리 집

사 이상의 직분자로 임명되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사역과 봉사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이 훈련되고 준비된 사역자들이라는 것이 나침반교회의 저력이다.

나침반교회는 오르막길이 조금 더 남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넉넉히 이길 것으로 믿어진다. 민경엽 목사의 아내 민미숙 사모는 투병 중이다. 온 성도의 응원과 기도로 거뜬히 이기고 있다.

가나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은 나침반교회가 지역과 세상을 향해 힘차게 약진하고 있음을 느끼는 예배였다. 그날 예배 기도마다 LA 지역 산불을 위한 기도를 했고, 파사데나에 있는 교회 산불피해자 성도를 위한 식수 나눔 광고가 마지막 광고였다. 강훈 기자



어노인팅교회(라 크라센타 소재)는 지난 1월18일(토) 마원철 목사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했다.

“나그네를 넘어 순례자” 어노인팅교회 찬양집회

‘만나며 사랑하며’를 새해 표어로 정한 어노인팅교회(라 크라센타 소재, 담임 신경섭 목사)는 지난 1월 18일(토) 마원철 목사 초청 찬양집회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할 가운데 은혜롭게 개최했다. 이날 평소 한인들에게 익숙한 “You raise me up” 찬양과 “I am just poor wayfaring stranger” 일반 노래를 신앙적인 내용으로 개사하여 불러지는 가운데 참석한 교인들 또 지역 주민들은 “새

해 창세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민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찬양집회 주제 나그네 wayfarer가 연결되었다. 목사님이 여러 차례 수술후 건강을 회복하시고, 찬양을 다시 준비하시고, RV카로 미국 전역을 순회하시며 있었던 여러 간증이 최근 저희 지역에 있었던 산불로 인해 어려웠던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선 기자

‘지선아 사랑해’ 이지선 교수 초청 간증집회

‘지선아 사랑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의 저자이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지선 교수를 초청 간증집회가 개최된다.

집회는 24일(금) 오후 7시 30분 새생명미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 25일(토) 오전 6시 남가주사람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29일(수) 오후 7시 30분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최근 수많은 사건, 사고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 등으로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끔찍한 교

통사고를 겪으며 하나님을 만나 영적 성숙을 경험한 이지선 교수의 진솔한 삶의 고백은 따스한 위로와 용기, 소망을 선사해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학 4학년 때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20여 차례 수술과 재활치료를 거친 이지선 교수는 보스턴대에서 재활상담학 석사, 컬럼비아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7년부터 한 동대학교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김민선 기자



이지선 교수.

원하트미니스트리, 2월부터 활동 재개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3개월의 겨울 재정비 시간을 마치고 2025년의 사역을 위해 오는 2월 돌아온다.

2024년에도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 지역교회의 연합과 예배팀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던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2025년에도 동일하게 지역교회와의 연합을 위한 시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한 달에 한번, 지역교회의 청년들과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 집회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간 연합을 도모하기 위한 예배로,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참신 신청은 lynnkimoneheart@gmail.com으로 하면 된다.

한편,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올해도 11년째 남가주 지역에서 건강한 크리스천 문화와 공연, 예배, 찬양 사역으로 섬겨왔다. 미니스트리 창립과 함께 11년째 멈추지 않는 원하트 미니스트리를 대표하는 ‘화요 찬양모임’도 2월부터 오픈한다.

김민선 기자

Advertisement for 'Father's Tabernacle' (아버지 밥상교회) featuring a man and text about Jesus saving fathers.

Advertisement for 'You can be a spiritual warrior' (당신도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다) listing church services and a contact number.

Large advertisement for 'ADU 전문' (ADU Specialist) by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featuring a man's portrait, a house diagram, and a QR code.

Footer advertisement for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os Angeles and Buena Park offices.



© 센터메디컬그룹

202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센터메디컬그룹

福

© 센터메디컬그룹

© 센터메디컬그룹

© 센터메디컬그룹

© 센터메디컬그룹

©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美 학부모 80% “학교 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반대”

미국 학부모 대다수가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고 수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부모 권리 옹호단체 ‘학부모수호교육’(Parents Defending Education)과 애리조나 기독교대학교 문화연구센터(Cultural Research Center, CRC)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미국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공립학교 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 “학교가 어린이의 성 정체성을 바꾸는 데 도움(이름 변경, 잘못된 대명사 사용,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변경 또는 가슴 봉대 착용 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부모 10명 중 8명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단 19%만이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교사, 상담사, 학교 간호사, 코치 또는 행정부가 부모에게 자녀의 성 정

체성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압도적인 수가 반대했다. 응답자의 75%가 “학교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며, 59%는 이러한 움직임에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부모의 77%는 “학교에서 자녀가 다른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면 교사나 직원이 그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응답자의 70% 이상은 “교사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현장 학습 등 외부 활동에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다른 사람과 방을 같이 쓰는 것”에 반대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78%는 스포츠 경기와 관련, “생물학적 성에 따라 지정된 팀에서 뛰어야 한다”고 했다. 학부모수호교육 홍보 담당 에리카 산지(Erika Sanzi) 이사는 “학교에서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정

보를 학부모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대한 압도적 반대 입장에 환호한다”며 “활동가 단체, 전국학교위원회, 교사 노조가 퍼뜨린 정책은 모두 미성년 자녀가 원한다면 학교 직원이 부모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을 허용하고 종종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이 부모의 뒤에서 성 전환을 촉진하는 이러한 보편적 추세는 완전히 광기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러한 광기를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위스콘신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 교육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부모는 자녀의 신원을 알 권리가 없다”며 “그 지식은 스스로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응답자의 25%만이 그 진술에 동의했고, 74%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 중 61%는 강력히 동의하지 않았다. 자신의 의견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19%는 “일부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 변화를 지지하

## 1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Alamy

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의 성 전환을 긍정하고, 이를 반대하는 부모로부터 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부모의 79%는 “자녀가 성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학적·심리

적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성별로 추천해 달라고 교직원에게 요청하면 그 교직원은 이를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송경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옥중에서 성경 읽는다

### 비서관 통해 김진홍 목사 사인 성경 요청해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은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 원장)가 매일 아침 공유하는 ‘아침묵상’ 글을 통해 알려졌다.

김 목사는 22일 아침묵상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이 찾아와서 나에게 부탁했다.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는데 김진홍 목사의 사인이 있는 성경을 넣어 달라 하셨다고 전했다”며 “내가 일러 주기를, 그렇다면 성경은 자녀가 사오면 사인을 해서 보내겠다 했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오늘 낮에 만나 정성을 기울여 사인을 하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적어 보냈다”고 했다. 그가 적은 성경구절은 시편 37편 23-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다.

그는 “나는 성경에 사인을 하면서 교도소 독방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있는 대통령의 모

습을 생각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다.

그는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며 “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선 포되었던 계엄령에 저항하여 시위를 주도하였다가 15년 형을 받고 옥살이 하였던 적이 있다. 그때 정치범 독방에서 성경을 읽고, 읽고 또 읽었으웠다. 그런 중에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을 읽을 즈음에 영적 체험을 하고 감격에 젖어 눈물 흘렸던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옥중에서 내가 보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님을 만난 후 새로워진 후 대통령직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고 했다.

김진홍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과 관련, 크리스천투데이와 두 차례 대담을 통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대용 기자

## 기도 속 ‘화합’의 외침, 현실의 과제

→ 1면 기사 <대통령 취임식을 뒤흔든...>에 이어서

### 기도와 축복에 담긴 통합의 비전

아리 버먼(Ari Berman) 랍비-예시바(Yeshiva) 대학 총장인 버먼 랍비는 이번 취임식을 “미국이 새롭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했다. 그는 “새 시대는 누구에게나 갱신과 낙관의 정신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며, “이 나라가 성서적·건국적 가치, 특히 봉사, 희생, 믿음, 도덕성으로 하나 되어 세계에 빛을 비추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로렌조 수웰(Lorenzo Sewell) 목사- 수웰 목사는 마틴 루터 킹 데리와 맞물린 이번 취임식을 특별히 더 의미 있게 여겼다. 과거 마약상 경험을 거쳐 목회자가 된 그는, 2024년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가 디트로이트 교회에 방문했을 때 직접 기도로 맞이한 인연이 계기가 되어 초빙되었다고 전했다. 수웰은 “우리 교회가 대통령 후보를 위해 ‘즉흥적으로’ 기도한 모습에 트럼프 측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그가 취임식 폐회 기도에서 언

급한 “미국이 다시 꿈꾸도록 도와 달라”는 구절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을 떠올리게 한다.

수웰 목사는 “자유가 울려 퍼지는(Let freedom ring)” 문구와 “마침내 자유(Free at last)” 등을 직접 인용하며 킹 목사의 어조를 되살렸다. 그가 말한 “킹 목사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라는 언급은 일부 비판-킹의 유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을 받기도 했으나, 동시에 다인종 미국 사회에 화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도 있다.

프랭크 맨(Frank Mann) 신부- 뉴욕 교구 소속의 맨 신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인연은 조금 독특하다. 과거 Mann 신부는 우연히 트럼프 부모의 묘지를 손수 깔고 정돈해 준 일이 계기가 되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교류하게 되었다. Mann 신부는 이번에 “새 지도자들이 약자와 목소리 없는 이들을 대

변하는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 MLK DAY, ‘하나의 미국’ 메시지

이번 취임식은 마틴 루터 킹 데리에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인종 화합과 시민권에 관한 담론이 강조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종·성별을 구분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더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것은 하나님, 헌법, 그리고 국민을 잊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역설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권 단체와 흑인교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실제로는 다양성과 평등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마틴 루터 킹의 가족과 인권운동가들은 “진정한 킹의 꿈은 단지 수사(修辭)가 아니라 실질적 제도 개선과 통합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 남가주 토랜스 주님세운교회 사역자 청빙

남가주 토랜스에 위치한 주님세운교회(KPCA교단, Junimseun Church)에서 2025년 교회의 새로운 도약과 부흥에 함께 동역할 신실한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 1. 담당 사역

- 행정,교구사역 1명 (풀타임 OR 파트타임)
- 교육부 사역 1명 (Youth 파트타임 or 파트타임)

### 2. 지원 자격 (목사 및 전도사 가능)

- 사역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비전이 있으신 분
- 본 교단이 인정하는 정규 신학교(M.Div)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 학부 재학 및 정규 신학교(M.Div)에 재학중인 신학생 및 유학생
- 한국에서 미국 유학과 이민 목회 경험을 원하시는 분
- 타교단 목회자 지원가능
- 미국에서 사역 시 신분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혹은 신분이 없으신 경우 종교 비자 및 영주권 sponsorship 가능
- 교회 행정 및 교구사역에 경험이 있으신 분
- 문서 작업 및 웹페이지 능숙자 우대

### 3.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사진, 연락처, 학업/사역 경력 등 포함)
- 자기 소개서 1부 (소명 및 은사 위주, 가족 소개 및 가족 사진 첨부)
- 추천 목회자 연락처 2명
- 최근 1년 이내 설교 1편 (링크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 4. 접수 및 문의

- 지원 : jscoffice01@gmail.com
- 문의 : 교회 행정 최돈승 전도사 (+1.310-325-4020/카카오톡 문의 가능)
- 접수 마감 : 2월 12일(주일)까지/ Rolling Base 로 리뷰 예정
-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사례는 인터뷰 후에 결정함, 결혼 여부와 자녀에 따라 사례 책정 참고함
- 접수 된 서류는 청빙과정에서만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 5. 교회 소개

- 교단 KPCA 서노회 소속
- 본교회는 2025년 3월 담임목사님의 이취임(Transition time)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교회를 함께 섬길 목회팀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 교회 주소 :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교회 홈페이지 : https://www.junimchurch.net/
- 교회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JUNIMSEUN



해외한인 장로회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담임목사 박성규 / 후임목사 신용환  
2025표어 : 빛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행3:13-14)





#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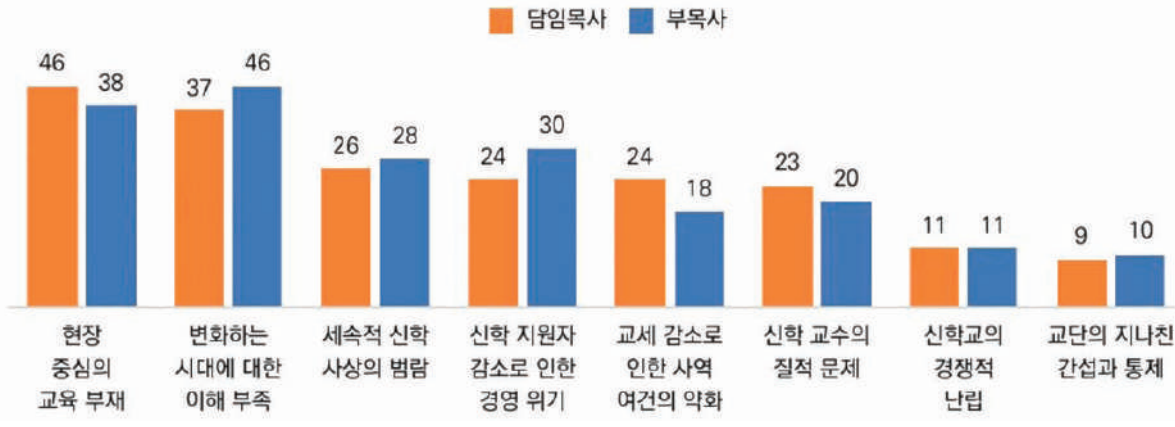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한국 신학교육 과제: 담임목사는 '현장' 부목사는 '트렌드' 지적

[그림] 한국 신학교육의 문제점 (목회자, 1+2순위, %)



한국 신학교육의 문제점.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신학교육의 과제에 대해 담임목사는 '현장 중심의 교육 부재'를, 부목사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 모두 한국 신학교육 기관의 숫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이견이 없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 이하 목대연)이 최근 '목회자의 신학교육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목대연은 "학령인구 급감, 기독교 인구 감소, 교세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신학교 지원자 수가 매년 줄어들

고 있다"며 "현재의 정규 신학교 과정이 과연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과 시대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현재 한국 신학교육기관의 수적 현황에 대해 목회자의 대부분(84%)은 '과도하게 난립되어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적정한 숫자라고 본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한국 신학교육의 문제점(1+2순위)에 대해 담임목사는 '현장 중심의 교육 부재(46%)', '변화하는 시

대에 대한 이해 부족(37%)', '세속적 신학 사상의 범람(26%)' 순으로 꼽았다. 반면 부목사의 46%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규 신학교 만족도는 담임목사의 경우 5점 만점에 3.5점(55%)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부목사도 3.7점(62%)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최종 학위가 '목회학 박사'(77%)와 '신학 박사'(77%)인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목회학 석사'(46%)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신학 관련 최종학위는 '목회학

## 교회의 현대사회 소통.대응에 한계 보여줘 담임의 정규신학 만족도, 5점 만점에 3.5점 목회자 대다수, 평신도 신학교육에 '긍정적'

석사'가 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학 전문 석사' 30%, '신학이론 관련 박사' 14%, '목회 관련 전문 박사' 12% 등의 순이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목회학 석사(M.Div.)는 보통 일반대학 졸업 후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목회를 위해 필요한 정규 신학교육 학위 수준으로는 '목회학 석사'(40%)와 '신학 전문 석사'(39%)가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79%)의 목회자는 목회를 위해 석사 과정(목회학/신학 전문)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신학교육이 무엇인지를 묻은 결과(1+2순위) '예배/설교 연구'(42%)와 '성경 연구'(40%)가 가장 높았고, 이어 '소그룹/양육(25%)' '상담/목양', '인문학 연구' 순으로 '소그룹'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주목된다. 목회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비신학 분야로는 '심리상담'과 '인문학'이 각각 47%, 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피치 기술 등 실용 교육' 28%, '사회복지' 18%, 'Chat GPT/AI' 18% 등의 순이었다.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1+2순위)으로는 '개인적 연구'(55%)와 '각종 세미나'(53%)가 가장 높았고, 이어 '동료 모임'(41%), '신학 학위 과정'(35%) 순이었다.

평신도의 신학교육에 관해 대부분의 목회자(80%)는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성도들에게 '평신도를 목회 사역자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을 묻은 결과 '신학교(29%) 과정'보다 '담임목사가 주도하는 성경공부나 리더십 과정'(43%)을 원했다.

송경호 기자

## 시니어센터, 2025 설날 큰 잔치 28일 개최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는 오는 1월 28일(화) 오전 11시에 설날 큰 잔치를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시니어센터에 따르면 강풍과 산불로 인해 LA 전체가 힘들지만, 많은 이들이 고민 끝에, 그래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때에 맞춰 새해 인사는 드려야 마땅하다는 말씀에 힘입어 어렵게 결정했다.

이 행사는 서울메디칼그룹, Uni & Good Friend, 한인의료협회(KAMA) 남가주지회 박대감네, Open Bank 후원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새해 들어 열리는 시니어센터의 첫 대규모 행사이다.

시니어센터에 따르면 설날은 추석과 함께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명절이다. 옛날부터 떡국을 먹고, 윷놀이 칠교놀이 투호놀이 연날리기 널뛰기 등 우리의 전통놀이로 마을 전체가 하나되어 축제를 즐기는 날이기도 하다.

설날을 맞아 한인타운 어르신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축하하는 자리

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시니어센터는 한국무용(지도 교수 희교수), 장구(지도 최혜련교수), 댄스기초(지도 박상규교수), 하모니카(반장 박증규), 실버발레(지도 진최교수) 등 공연과 함께 참가한 300명(사전 배포 초대권 소지자에 한 함) 모든 분들께 맛있는 설날 잔치음식을 무료로 대접한다.

또, 참가자 모두에게는 쌀 15파운드 300 포(기증 박대감네), Hand Cleanser(기증 최선호 Best Roll Up Door 대표), Stacy's Pita Chips 300 개, 마스크 등을 골고루 나눠

하아름 씩 안길 예정이다. 신영신 이사장은 "산불로 인해 LA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어느 누구보다 모두 소중한 분들"이라며 "새해를 맞아 준비한 행사에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잔치음식도 드시며 선물도 받아 가셨으면 한다. 이번 잔치가 모두에게 새해 새 희망을 선사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니어센터: 965 S. Normandie Ave, #200, L.A. CA 90006 문의: 213-387-7733

토마스 맹 기자



사진은 2024 설날 큰 잔치 모습

## 사춘기 자녀와 잘 지낼 수 있을까?

올해 표어를 "다음세대를 믿는 교회"로 정한 동부 사랑의교회에서는, 이 비전을 위해 부모코칭 세미나를 준비했다.

첫 세미나(2/2, 2시)에서는 캘리포니아 뱍티스트 대학상담심리학 교수 이종전 교수가, 자녀와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참석자들은 정서적 소통 자가 진단 테스트를 통해 자녀와의 소통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게 된다. 두 번째 세미나(2/9, 2시)는 남가주 다음세대 지키기 대

표 이진아 강사가 미디어에 노출된 자녀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미나(2/16, 1:30)는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 문제를 다룬다. 이종전 교수는 부모가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미나(2/23 1:30)에서는 우영화 목사(동부 사랑의교회)가 '성경적 세계관'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윤성혁 목사(909-756-4664), eastsarangweb@gmail.com

**다음세대를 믿음의세대로 부모코칭 세미나 2025**

- 22 자녀와 정서적으로 잘 소통하려면 2:00pm
- 29 다음 세대의 위기, 미디어 전쟁 2:00pm
- 216 사춘기 자녀와 잘 지내고 싶어요 1:30pm (성경 자녀에 대한 이해와 갈등해결)
- 223 세계관 전쟁 1:30pm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기)

동부사랑의교회가 부모코칭 세미나를 준비했다. ©동부사랑의교회

**NEW COVENANT ACADEMY**

**CELEBRATING 25 YEARS**

**AN IB WORLD SCHOOL**

- RIGOROUS ACADEMIC PROGRAM
- EFFECTIVE AND CARING TEACHERS
- SAFE AND NURTURING CAMPUS
- AFFORDABLE TUITION
- SOLID CHRISTIAN EDUCATION
- 100% UC ACCEPTANCE
- 10:1 STUDENT-TO-TEACHER RATIO
- WASC ACCREDITED
- SENIOR SAT AVERAGE: 1370

**ENROLLING NOW! K-12**

**Voted #6 Best Christian High School in CA**

FOR MORE INFO SCAN ME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213) 487-5437 NCAHUSKIES.ORG

WASC ACCREDITING COMMISSION FOR SCHOOLS ACSI STRONGER TOGETHER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트럼프 대통령 “내 삶 구원받아... 하나님 잊지 않을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성경을 앞에 두고 선사하고 있다. ©영상 캡처

“헌법과 하나님 기억... 트랜스 광기 사라질 것”  
그래함 목사 기도 “주님 떠나면 위대할 수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다”며 “고 선언하며 미국을 ‘황금기’(golden age)로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로툰다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트럼프 신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발생했던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를 언급했다. 당시 그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총알이 지나가 그의 오른 귀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공화국을 되찾는 여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대의를 막으려는 자들은 내 자유를 빼앗으려 했고, 실제로 내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암살자의 총알이 내 귀를 찔었다. 당시에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내 삶이 어떤 이유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며 “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I was saved by God to make America great again)”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취임식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부르며 미국인들에게 “우리는 우리나라를 잊지 않을 것

이고, 헌법을 잊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 바로 시작된다”면서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 차별이 없고 실력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그의 행정부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Capital One Arena)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자신의 행정부 하에서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역사를 존중하고, 위대한 미국 국기를 항상 존중하도록 가르칠 것이며,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과 트랜스젠더 광기(transgender insanity)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추위로 인해 198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회의사당 내부에서 진행됐다. 특히 취임식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의 기독교인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기도하기도 했다.

그래함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들이 그가 쓰러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구원하셨고 일으키셨으며, 당시의 전능하신 팔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 평화 시위 혐의로 8년간 구금된 쿠바 목사, 최근 풀려나



쿠바의 로렌조 로살레스 파하르도 목사와 그의 아내. ©CSW

쿠바의 로렌조 로살레스 파하르도(Lorenzo Rosales Fajardo) 목사가 2021년 평화 시위를 벌인 혐의로 8년형을 마치고 석방됐다.

그는 미국 정부가 쿠바를 주요 테러 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후 풀려난 여러 정치범 중 한 명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쿠바의 2021년 시위와 관련된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로살레스 파하르도 목사가 대규모 사면의 일환으로 지난 17일(이하 현지 시간) 마르 베르데 교도소에서 풀려났다’고 영국 박해감시단체 세계기독연대(CSW)가 밝혔다. 그는 석방이 결정된 553명의 정치범 중 한 명이다. 그와 함께 아프리카계 쿠바인 유루바족 종교 지도자 도나이다 페레스 파세이로(DONAI DA PÉREZ PASEIRO)도 석방됐다. 그녀의 남편이자 유루바족 지도자인 로레토 헤르난데스 가르시아(LORETO HERNÁNDEZ GARCÍA)는 석방되지 않았다.

대규모 사면에 앞서 미국은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쿠바 정부가 하마스, 헤즈볼라 및 미국이 적으로 규정된 다른 테러리스트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공조해 왔다”고 주장 해온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비판을 받았다. 로살레스 파하르도 목사는

2021년 7월 11일 쿠바섬 전역에서 평화 시위에 참여한 수백명과 함께 처음엔 팔마 소리아노에서 구금됐다. 8개국으로 이뤄진 ‘국제 종교 자유 또는 신앙 연합’이 2024년 6월 발표한 성명에서 그는 “당국이 체포 후 때리고 폭력적이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12월 무례, 폭행, 범죄적 선동 및 공공질서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마드리드에 있는 감시단체 ‘프리즌너스 디펜더스’(PRISONERS DEFENDERS)에 따르면, 쿠바의 정치범 수는 2021년에 5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의약품과 식량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시위를 벌이는 이들을 단속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위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다. 파하르도 목사는 보니아토에 있는 최고 보안교도소에 수감됐으나, 그의 친척들은 그가 2023년 초 집에서 더 가까운 보안 시설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IRFBA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구금 중 굴욕적 처우를 당했다. 교도관들이 신앙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 내가 감옥 안에서 종교적 가르침을 계속 전하자, 그들은 나를 2022년 ‘차별 방’에 가뒀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바자세대에)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를 영혼을 중시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세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맡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CMC 중보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C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동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트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정우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11:00am  
 주일3부예배 9:30am 수요일찬양회 7:30pm  
 주일4부예배 11:15am 토요일예배 6:00am  
 주일5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9:30,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이대학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리구구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구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장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반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장년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장장년/교육부)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 LA 동부 지역

**우영담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y)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tar.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안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토) 새벽예배 오전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 NFC 챔피언십 진출한 신에 쿼터백 “하나님께 영광돌려”



워싱턴 커맨더스의 쿼터백 제이든 다니얼스 선수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경기에서 팀이 승리한 후 폭스 스포츠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Fox Sports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미식 축구팀 워싱턴 커맨더스의 선수이자 신에 쿼터백인 제이든 다니얼스가 이끄는 팀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를 상대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며, 33년 만에 NFC 챔피언십 게임 진출을 확정지었다고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다니얼스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의 신앙과 결속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은 우리 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시작된다”며 “우리는 서로를 믿고, 하늘 위에 계신 분을 믿는다. 우리는 나가서 싸울 것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제 몇 경기만 남았고, 내일 우리가 누구와 경기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이 팀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덧붙였다.

2024 NFL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지명되고 2023 하이즈먼 트로피를 수상한 LSU(루이지애나 주립대) 출신의 다니얼스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299야드 패스와 2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러싱으로도 51야드를 더해 다재다능함을 과시했다.

이전 경기에서 탬파베이 버커니어스를 상대로 한 승리 후, 다니얼스는 경기 후반 역전 드라이브를 이끌며 침착함을 유지한 비결에 대해 질문받았다. 그는 “주님에 대한 믿음 덕분이다. 걱정할 필요

가 없다. 모든 걱정을 그분께 맡기면 된다”라고 답했다.

CP는 다니얼스 선수가 종종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앙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시카고 베어스를 상대로 극적인 ‘헤일 메리’ 패스로 승리한 뒤에도 그는 “지난주 부상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CP는 그가 과거 LSU 시절, 플레이어 리텐션 디렉터인 셔먼 윌슨과의 만남이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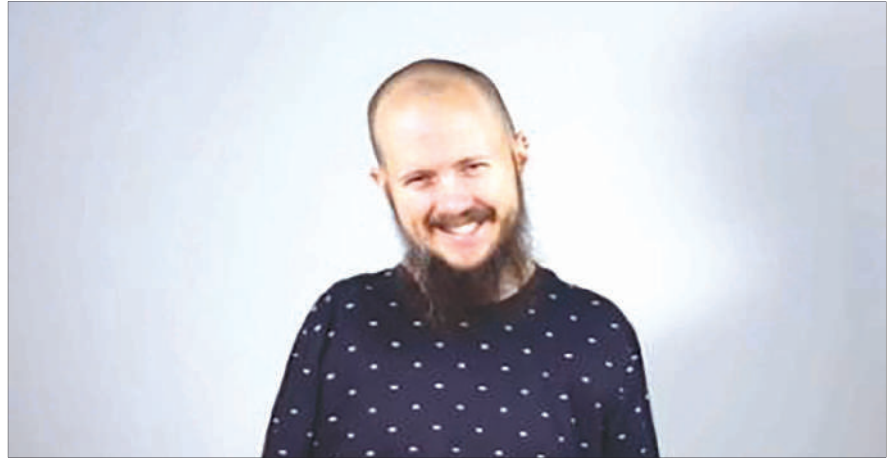
다니얼스 선수는 “그와 함께하면서 제 신앙을 더 깊게 되돌아보게 되었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2023년 11월 LSU 체육 웹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한 그는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을 너무 빨리 이루려는 압박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다. 성숙해지고 신앙을 더 깊이 탐구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커맨더스는 이제 슈퍼볼 진출까지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로스앤젤레스 램스 간의 경기 승자와 NFC 챔피언십에서 맞붙게 될 예정이다.

최승연 기자

# ‘양팔 없는 장애 극복’ 목사, 美 남침례회 부총회장 후보 지명돼



▲양팔 없이 태어난 다니엘 리치 목사. 그는 장애라는 역경을 이겨내고 2018년 4월 11일 ‘그분의 영광을 위한 나의 고난’ (My Affliction for His Glory)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Vmeo 영상 캡처

작가이자 복음전도자인 더서밋교회 다니엘 리치(Daniel Ritchie) 목사가 미국 남침례회(SBC) 부총회장 후보로 지명됐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나의 고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법’과 ‘인내: 장기적으로 믿음을 쌓는 법’ 등을 펴낸 리치 목사는 오는 6월 열리는 SBC 연례회의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나선다.

리치 목사를 후보로 지명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에이펙스 소재 페어뷰침례교회 맷 캡스(Matt Capps) 수석목사는 비블리컬 레코더(Biblical Recorder)와의 인터뷰에서 그에 대해 “SBC가 이 세대에 일으킨, 가장 진실하고 충성되며 열정적인 증인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캡스 목사는 “나는 우리 총회에서 이 복음의 종을 인정하고 그 직업적인 복음 전도자로서의 중요한 사역을 지지하며 그가 제1부회장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리치 목사는 8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러한 지명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교회 내 개인 전도와 젊은 세대 사역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 대사명은 계속 SBC의 추

진력과 초점이 돼 왔다”고 했다. 청소년 시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리치 목사는 저드스대학에서 성경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사우스이스턴침례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 중이다. 리치 목사는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와 애리조나의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했으며,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2022 SBC 목회자 컨퍼런스’를 비롯해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교회, 캠프, 학교 및 기타 그룹에서 말씀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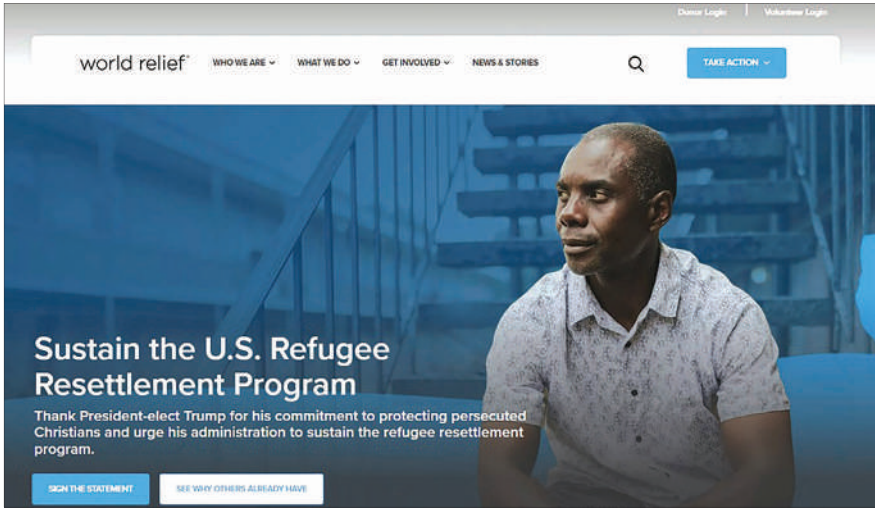
양팔 없이 태어난 리치 목사는 자신의 장애, 주변 사람들의 낙인, 그리고 팔 없이 사는 삶의 고충 등을 극복한 경험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왔다. 지난 2022년에는 크리스천포스트(CP)에 게재된 “내가 날 사랑하게 된 이유”라는 제목을 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만든 문화의 속도에 맞춰 일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낱자를 세는 것처럼 시간을 세지 않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깨어진 시간 관점에 그분의 일을 맞추지 않으신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서두른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美 복음주의 지도자들 “트럼프, 기독교인 난민 재정착 도와야”

## 전미복음주의협과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 등 성명



월드리리프 홈페이지.

월드리리프(World Relief)는 14일(이하 현지시각) ‘난민 재정착에 대한 기독교 성명’을 트럼프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전미복음주의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보수적 기독교 단체,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 지지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적 자유와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난민 수용 한도를 그 수준 이상으로 다시 한 번 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나라의 국경을 강력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 데 대해 감사한다. 또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체제를 보장하라는 그의 최근 요청에 감사하고 이를 확인한다”고 했다. 또 박해받는 기독교인과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는 난민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과거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전국복음주의협회 월터 킴(Walter Kim)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강화함으로써 박해받는 기독교인과 다른 신

앙인들을 구출하는 데 있어 국가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온 난민의 아들로서, 저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피난처를 얻어 미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오늘 살아 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박해받는 난민을 환영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단체인 미국 오픈도어에 따르면, 2024년에 50개국에서 온 박해받는 기독교인 29,493명이 미국에 정착했다.

미국 오픈도어의 라이언 브라운(Ryan Brown) 대표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례 없는 박해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걷는 지속적 헌신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나는 박해받는 교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에 감사드리며, 그 지원의 중요한 부분은 미국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지속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 성명서는 또한 난민들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기여했고, 교회가 난민을 지원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이프웨이연구소(Lifeway Research) 설문 응답자의 71%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강혜진 기자

#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기독교인 여성, 보석 허가받아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의 한 기독교인 여성이 이슬람 사원의 지도자에 의해 신성모독죄로 잘못 기소된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게 되었다고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CDI는 지난 16일 Gojra Additional Session의 판사 와심 무바리크가 신성모독 법 295-B항에 따라 기소된 50세 가톨릭 신자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인 사지아 유니스에게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 훼손에 대해 중신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니스 씨의 변호사 자베드 사호트라리는 “법원이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유니스가 고의로 신성모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제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사호트라 변호사는 경찰이 잘못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295-B항은 피의자가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코란을 훼손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도 유니스가 폐지와 함께 이슬람 관련 서적을 불태운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295-B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CDI는 고소인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으며, 경찰도 유니스 씨의 소지품에서 어떤 유죄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5만 루피(약 180달러) 보석금을 조건으로 유니스의 석방을 명령했으며, 서류가 완료되는 며칠 내로 그녀가 석방될 것이라고 사호트라 변호사는 밝혔다. 유니스 씨는 지난 12월 21일 파키스탄 펀자브 주 토바 텍 싱구 지역에서 한 이슬람 사원 지도자인 아타 울 무스



가톨릭 신자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인 사지아 유니스 씨.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Morning Star News

타파의 고소로 체포되었다. 무스타파는 유니스가 집 밖에서 책을 태우는 것을 두 명의 현지 주민에게 들었고, 그중 한 권이 이슬람 경전 구절이 포함된 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위원회(UNHRC)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잘못된 고소로 인한 폭력 사례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수감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파키스탄은 2024년 오픈 도어스(Open Doors) 세계 감시 목록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8위로 선정된 바가 있다.

최승연 기자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침야(아기돌)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8: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어,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오전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랑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 396-4441 www.igmc.org

**장수영 담임목사**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교동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 901-919 Email: joonim0623@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 나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아기돌)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베베/민들레)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3-8755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1부 8:00AM 중교동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오영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영성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회요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 219-5434 www.sammoool.org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30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베이크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교동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송상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kc/index.php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 685-2212, woori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8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바판,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타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갈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하여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 미주밀알선교단, 103명에 장학기금 전달

총 103명에게 \$134,200 수여

미주밀알선교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1월 20일(월)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열렸다.

이정수 남가주밀알 행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밀알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되어 '밀알스토리' 영상 상영과 심상은 남가주밀알 부이사장 겸 갈보리선교교회 담임목사의 기도, 이재서 세계밀알연합 총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재서 총재는 '밀알의 사명'(요한복음 12:24)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23년 동안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해 온 것 자체가 기적이다. 세사적 시각으로 장애는 불완전하고 아무 쓸모 없는 것이겠

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장애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이다. 수많은 분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인 만큼 이에 감사하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바란다"고 장학생들을 격려, 축복했다.

이후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고, 이종희 남가주밀알 단장의 감사의 말씀, 그리고 이지선 이화여대 교수와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 담임)의 격려사에 이어 이영선 미주밀알 이사장 겸 미주복음방송 사장의 축도로 2025년도 밀알 장학금 수여식이 모두 막을 내렸다.

이중열 남가주밀알 이사장 겸 장학위원장과 이재서 총재, 심상은 목사, 이정수 이사, 김병학 목사, 이지선 교수, 정용해 이사, 이은철 목사, 이재형 목사, 양희원 이사, 이종희 단장, 이영선 사장, 그리고 이

준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에서 미주장애인장학생 9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16명, James Worldwide 장학생 10명, Moon Foundation 장학생 10명, Chong's Family Foundation 장학생 5명,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 제3국 및 중남미 장학생(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과테말라, 볼리비아, 멕시코, 우간다) 2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10명 등 총 103명에게 \$134,200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이로써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총 지급액은 \$3,146,600에 이른다.

이번에 수여되는 장학금은 작년 10월초에 개최된 '2024 밀알의밤'을 통해 모금된 재원으로 마련되었다.

기사제공: 남가주밀알 홍보부



미주밀알선교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1월 20일(월)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남가주 밀알 선교단

## 제6기 KAMA USA 시니어 모델 오디션 열린다

KAMA USA 시니어 모델 협회가 제6기 시니어 모델 오디션을 2월 22일(토) 오전 10시, LA에서 개최한다.

이번 오디션은 열정과 패션에 대한 열정을 지닌 5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합격자들에게는 다양한 패션쇼 무대에서 런웨이를 경험할 기회와 시니어 광고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접수기간은 1월 13일(월)부터 2월 20일(목)까지이며 55세 이상 남녀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참가비는 \$150이며 환불은 불가능하다.

지원자는 이름(한글/영어), 나이, 직업, 취미/특기, 핸드폰 번호와 함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사진 2장을 이메일(kamamodelusa@gmail.com) 또는 카카오톡(협회213-605-1079)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KURVE on Wilshire 6th Floor (2801 Sunset Place, Los Angeles, CA 90005)에서 2025년 2월 22일(토) 오전 10시에 열리며 문의는 719-722-8921로 하면 된다. KAMA USA는 시니어 모델들에

**제6기 KAMA USA 시니어 모델 오디션**

2025년 2월 22일 (토) 오전 10시

- 접수기간 2025년 1월 13일(월) ~ 2025년 2월 20일 (목)
- 응모자격 열정넘치는 55세 이상 남녀
- 참가비 \$150 (No refund)
- 접수방법 이름(한글/영어), 나이, 직업, 취미/특기, 셀폰 번호 전신 사진 2장 (최근 6개월)을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kamamodelusa@gmail.com  
협회 213-605-1079
- 오디션장소 KURVE on Wilshire 6th Floor  
2801 Sunset Place, Los Angeles, CA 90005
- 문의처 카마 시니어 모델협회 719-722-8921



KAMA USA 시니어 모델협회가 제 6기 시니어 모델 오디션을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KAMA USA

게 단순한 런웨이를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셉 리 기자

## 태평양 법률 협회 주최 자녀 교육 세미나

오는 2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평화교회(Peace Church, 담임 김은목 목사, 2538 W. Pico Blvd. LA CA 90006)에서 태평양 법률 협회 주최로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법과 규례와 관련해 MZ 세대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공립학교의 일방적인 교육 시스템을 알리고, 학부모가 학교 P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립학교 시스템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또한 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 방법에 대

해서도 나눌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한국어 통역이 제공된다.

총 3 세션으로 진행되며, PJI 설립자 브레드 대쿠스 박사가 "How to Position Your Church and Ministry in Today's Changing Culture", 마이크 페퍼 변호사(PJI 남가주 상임 변호사)가 "Parental Rights and Student's Religious Life in Public School"에 대해, 주성철 교수(PJI 한국부 담당)가 "Before CPS Come Knocking at Your Door"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 세미나의 대상은 목회자, 청



태평양 법률 협회 주성철 교수 소년 사역자, 학부모, 교육부 부장 등이며, 남가주 교회 협의회가 후원한다. 문의: rju@pji.org, 714-640-7471(주성철 교수 Randy Sung Ju, Ph. D.)



# [사설] WEA 서울총회, 돼지에게 진주 던지는 꼴

새해 들어 '2025 WEA 서울총회' 개최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 WEA 집행부가 친이슬람·가톨릭에 기운 나머지 에큐메니칼 신학에 편승한 신자유주의자들이 주를 이루는 등 복음주의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는 이유에서다.

'2025 WEA 서울총회 유치'를 반대하는 교회지도자 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6일 '2025 WEA 서울총회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예상 합동 축 목사와 장르 등 1,3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입장문에서 자신들이 WEA 서울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WEA 집행부의 복음주의 이탈"이라고 정의했다.

지난해 사랑의교회와 WEA 서울총회 호스트가 되어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하자 합동 교단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총회 산하 지교회가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WEA 서울총회 개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이 교단의 권위와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WEA가 비성경적인 단체로 전략한 증거로 최근에 WEA 지도자가 무슬림 단체(NU)와 만나 긴밀한 친교(Best Friends) 관계를 맺은 사례를 지적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기구가 복음에서 이탈해 종교 다원주의로 경도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협의회는 WEA의 이런 반 복음주의적 흐름을 WEA 부총무 사무엘 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현 WEA 수뇌부가 '에반젤리칼'(Evangelical) 정신에서 이탈해 WCC가 지지하는 '에큐메니칼'(Ecumenical)과 뒤섞여 '잡탕밥'이 된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WEA의 법적 대표라 할 수 있는 국제이사회 굿윌 사나 의장은 한국교회가 경계하는 '신사도운동'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직전 사무총장 슈마허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논란을 빚다 얼마 전 사임했다. 또 다른 전 사무총장은 로마 교황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인사로 알려졌다.

이런 인사들이 지난해부터 비밀리에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해 국내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자주 접촉한다는 건 그저 떠도는 소문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 출범이라는 결과물이 딱 하니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가 공식 출범한 후에도 온갖 설이 교계를 어지럽혔다. WEA 수뇌부가 한국교회에 돈을 목적으로 WEA 회원이 아닌 대형교회를 골랐다는 설부터 몇몇 교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해 수십억 원의 국고지원 협조를 요청했다는 소문까지 파다했다.

이 확인되지 않는 소문의 공통점은 모두 '돈'에 있다.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가 가진 재정과 인원 동원 능력이 WEA 수뇌부의 마음을 혹하게 했을 것이란 건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하지만 누가 연결고리가 돼 이걸 성사시켰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런 시점에서 부각된 인물이 WEA 부

총무 사무엘 장이다. 그는 WEA 내에서 실질적으로 일한 경력이 2~3년에 불과한데도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논란으로 사임한 슈마허가 부총무로 영입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가 공식인 총무를 대신해 사랑의교회를 호스트로 한 WEA 서울총회 개최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온통 베일에 싸인 그의 전력과 정체성이다. 그는 로잔에서 활동하다 WEA로 옮겨온 인사 정도로 알려졌다. 그런데 로잔 활동 당시 PRC(중화인민공화국)로 표기돼 있던 그의 국적이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왜 자신의 중국 국적을 지웠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어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친이슬람, 친중 인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엘 장 부총무의 사임과 사랑의교회의 WEA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사무엘 장 부총무의 국적 의혹뿐 아니라 2024년 2월 29일 아부다비를 방문해 무슬림 장로협의회 사무총장과 만나 종교 공동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등 노골적인 친 이슬람적 행보를 한 인물이란 것이다.

이런 문제 인물들에 장악당한 WEA가 복음주의 정신 구현이라는 근본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이도 저도 아닌 단체로 추락하고 있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한기총과 예상 합동 축 목회자와 장르들이 WEA 서울총회 개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WEA의 날개 없는 추락에 한국교회가 편승해선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다. 이런 논란에 대해 사랑의교회 측과 WEA 서울총회 조직위 측은 WEA의 신학과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에 WEA 멤버십을 가졌던 한기총과 현 회원인 한교연 등 여러 복음주의 노선의 단체들이 WEA 수뇌부가 신자유주의 내지는 종교 다원주의 논란의 중심에 선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들을 제시해도 여전히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자세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WEA 의장과 전직 총무, 현 부총무 등 수뇌부가 한국의 대형교회에 접근한 이유가 WEA가 지향하는 복음주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친이슬람과 가톨릭에 기웃거리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들이 한국교회를 통해 잇속을 챙기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지금의 상황은 설명이 안 된다. 이들에게 수십억 원을 안겨주고 한국교회가 얻을 건 복음주의 정신에 대한 배반과 조롱 뿐일 것이다.

성경은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마7:6)고 말씀하셨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 위중한 시기에 데 고작 세계대회를 유치했다는 명예욕 하나로 성도들이 피땀 흘려가며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지불한단 말인가.

# [백인호 장로 칼럼] 노년의 적요



백인호 장로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구역 창세기를 보면 옛날 사람들은 백년을 훨씬 넘게 산 사람들이 많은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서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 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인생이란 역시 잠시 아침에 피어나 한겨울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가는 꽃잎과도 같은 존재임이 틀림 없는 것 같다. 우리의 삶이 80년이란 세월도 수고와 슬픔 속에서 지나 가지만

지내놓고 보면 잠깐이며 아쉬움만 남을 뿐이다. 이조시대의 왕들의 수명이 평균 40대라고 하였으니 80세까지 산다는 것도 대단히 건강한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현실은 100세를 바라보는 장수 시대라 하니 인생의 결승전을 어떻게 마무리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사회적 문제인 동시에 나에게도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내가 20대에 푸른 재복을 입고 강원도 전방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할때는 고통스러운 것만 보였지 그 시절의 행복했던 것들은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와 같은 말은 내 귀가에서 맴돌 뿐 한밤이 여삼추였다. 어둠이 엄습한 한밤중 차가운 바람과 씨름하며 병사들과 산중턱 방공호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전술 훈련을 하던 그시간이 어쩌나 길고긴 밤인지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무진장 긴 줄로만 느껴졌다.

추위도 잊은채 한밤을 지새우던 적막한 산중에서 나는 2소대장인 홍소위에게 말을 건넸다. "야 홍소위, 아마 틀림없이 먼 훗날

우리가 군복을 벗고 어데선가 살아있다면 이시간이 얼마나 그리워 뭉뚱뚱 칠날이 있을거야." 내말이 떨어지자마자 "암 그렇고 말고" 호탕한 목소리로 홍소위는 맞장구를 쳤다. 홍소위는 서울대 체육과를 나온 친구로 키가크고 체격이 우람하며 성격이 호탕하여 농담도 잘하고 막걸리 주점에 가면 노래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든 아가씨들에게 인기를 독차지 하는 같은 중대 2소대장을 맡고 있었다. 나는 1소대장이니 나와 같이 내무반에 있다보니 늘 명랑하게 군생활을 하게 했던 동지이다.

예편후에는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우린 서로서로 다정하고도 희망찬 목소리로 방공호에서 추위를 이겨가며 이야기를 나누며 먼훗날을 꿈꾸던 때가 억그제 같기도 하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때의 그 동지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 것을 깨달을 것 같다. 젊음은 가고 몸은 쇠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밀어 닥치니 우리 노년들은 어

떻게 세월을 보내야 할까. 나는 종종 라스베가스 산기슭 하늘을 올라다 본다. 때로는 심술맞은 비 바람도 있지만 지도 같기도하고 예수님 같기도한 안그리진 구름을 바라보며 술래 잡기를 하는지 이상한 모양의 구름들이 둥실 둥실 떠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친구도 하나 둘 가고 형제도 가고 모두가 어디론가 흘러가는 걸 보면 상흔을 느낄 뿐이다. 노년이 되면 누구에게나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가 된다. 구름이 흘러가듯 나도 어디론가 흘러만 가고 있으니까. 뽕을 어루 만지는 바람, 친구에게 걸려온 안부전화, 집까지 찾아와 주는 사람, 모두가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며 적요의 여백을 채워주고 역시 노년의 행복은 하나님을 붙들고 찬송을 부르며 주님 말씀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누구라도 마지막에 그날이 오면 혼자자 된다. 오는길이 혼자였듯이 가는길도 혼자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너무 노인임을 자각하지 말자..!

# 2025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성경사역학철학박사
- 목회학석사
- 교육목회학박사
-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CPU**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온캠퍼스 온라인 동시 프로그램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9547 EXT.# 112/admin.kor@itsia.edu



#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 세계 최초의 최첨단

##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항 20회 (혈액순환)
- 훈욕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기교문

# 한국선교 극적 성장의 3요인... “다시 세계교회 앞에 겸손해져야”



문대원 목사  
대구동신교회  
국제로잔 이사

지난 9월 로잔운동 50주년을 기념한 제4차 로잔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다. 대회에 참석한 세계 기독교인들은 특히 한국교회의 선교적 성취와 역사적 변화에 주목했다.

4차 대회 한국준비위원회 총무로 섬긴 문대원 목사(국제로잔 이사, 대구동신교회 담임)는 최근 국제로잔 기교문에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운동의 중요한 동력이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복음주의 운동에서 선교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명했다.

문 목사는 1907년 평양대부흥이 한국 교회의 특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양대부흥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연합사경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참석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고 죄에 대한 깊은 찢림을 경험하면서, 도둑질, 간음, 중혼, 우상 숭배와 같은 개인적인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평양대부흥은 한국 기독교에 여러 면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첫째, 신자들이 내적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둘째, 평등과 화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셋째, 새벽기도, 통성기도, 말씀 사경회와 같은 실천들이 대중화되었다고 분석했다.

1970~80년대에 민주화와 산업화 시기를 지나면서, 급부상한 복음주의 청년 선교운동에 주목한 그는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집회를 비롯, 1980년대 후반 로잔 언약이 제시한 하나님 선교의 포괄적인 성격에 깊이 감동받은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국 선교사의 극적인 성장 배경에 세 가지 요인을 꼽은 문 목사는 첫째,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둘째, 한국 교회는 특히 선교를 위해 관대하고 희생적인 헌금 전통을 유지해 왔으며, 셋째, 한국의 경제 성장과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의 외교 관계는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 활동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문 목사는 도전 과제로 “지난 2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침체와 심지어 쇠퇴를 경험했다. 이는 세속화, 종교에 대한 젊은이들의 무관심, 여러 대형 교회에서 발생한 스캔들 등의 이유에 기인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배타적’, ‘물질주의적’, ‘위선적’,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한국 기독교를 묘사하는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문 목사는 “(로잔대회 한국) 참가자들은 개별 신자들과 교회의 영적 갱신을 위한 연합된 기도 없이 이번 대회가 한국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확인했다”고 했다. 성도들은 로잔대회에 대표를 보낼 모든 나라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로 다짐했고 이러한 풀뿌리 기도 운동은 한국 교회 내에서 로잔운동의 정신을 알리고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문 목사는 밝혔다. 다음은 문 목사의 기교문 전문.

### [기교문] 한국의 선교 운동 : 한국 교회의 역사와 교훈

2024년 9월, 제4차 로잔대회가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렸다. 이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차 세계복음화 국제 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로잔운동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모인 그 모임 이후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의 지형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필립詹킨스를 비롯한 많은 학자는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 북에서 남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주목해 왔다. 다수 세계에서 기독교가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면서 21세기에 기독교 신앙은 독특하게 글로벌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국은 현대 선교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 동력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 열린 제4차 로잔대회에서는 한국 교회의 역사와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한 저녁 세션이 진행되었다. 많은 참가자는 전쟁과 빈곤으로 황폐했던 이 작고 고립된 나라가 경제적으로 강대하고 문화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 나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선교사 파송국으로 변모한 과정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다수 세계에서 온 대표들은 복음의 능력이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제 역사적 사례를 발견하며 큰 격려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면,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 것이다.

### 결정적 순간: 1907년 평양 대부흥

단일한 역사적 사건이 한국 교회의 성격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겠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분명히 깊은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고립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었으며, 1903년에서 1910년까지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부흥 운동의 일부였다. 전쟁과 기근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시기에 부흥 운동의 첫 불씨는 1903년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A. 하디에 의해 점화되었다. 이 운동은 곧 1906년에 장로교로 확산되었다.

1907년 1월, 평양 대부흥은 평양 장대현교

회에서 열린 연합사경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참석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고 죄에 대한 깊은 찢림을 경험하면서, 도둑질, 간음, 중혼, 우상 숭배와 같은 개인적인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다. 평양 대부흥의 주요 지도자는 서양 선교사가 아닌 한국인 목사 길선주였다. 그는 이후 1919년 3·1 독립운동의 주요 지도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 부흥운동의 결과는 평양의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중요포인트) 평양 대부흥은 한국 기독교에 여러 면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첫째, 신자들이 내적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흥 이후로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으며 믿음을 갖는 것은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을 수반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둘째, 평등과 화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의 전통적인 엄격한 사회 계층과 성별 경계가 흐려졌고, 서구 선교사들도 한국 신자들을 단순히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로 바라보게 되었다. 셋째, 새벽기도, 통성기도, 말씀 사경회와 같은 실천들이 대중화되었다. 이러한 부흥 운동의 실천들은 교파와 전통에 상관없이 오늘날 거의 모든 한국 교회의 특징이자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 복음주의: 부흥에서 선교로

복음주의는 하나의 이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며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 운동으로, 18세기의 두 차례의 종교적 부흥, 즉 (조나단 에드워즈와 관련된) 대각성 운동과 (존 웨슬리와 관련된) 복음주의 부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복음주의자들이 보이는 신학과 실천의 구별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궁극적인 권위로 여기며, 회심의 경험과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강조하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 선교와 전도를 중시하는 기독교인으로 정의된다.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과 선교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부흥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에너지를 제공한다. 유명한 역사가 앤드루 윌스는 현대 선교 운동을 ‘복음주의 부흥의 가을 열매’라고 묘사했다.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다른 예는 디엘 무디의 전도 캠페인과 영국 및 미국에서 일어난 학생 선교 운동의 부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 교회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선교 운동

1970~80년대에 민주화와 산업화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에서는 복음주의 청년 선교 운동이 놀라게 부상했다. 1973년의 역사적인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를 포함한 대규모 전도

집회를 통해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힘을 얻었다. 1980년대 후반, 로잔 언약이 제시한 하나님 선교의 포괄적인 성격에 깊이 감동받은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개인과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어디든 갔다.

청년 선교 운동의 정점은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2년마다 열리는 선교 대회인 선교 한국 대회(Mission Korea Congress)의 출범이었다. 이 대회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와 같은 해에 시작되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선교 한국 대회는 수많은 젊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위한 동력을 제공하고 그들을 동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대회 참가자 수는 1988년 664명에서 1996년 6,30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기간,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해외 선교에 헌신했다. 이로 인해 젊은 선교사 후보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국 선교사의 수는 1986년 511명에서 2002년 10,422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후 11년 만에 20,000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 도전과 미래 전망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침체와 심지어 쇠퇴를 경험했다. 이는 세속화, 종교에 대한 젊은이들의 무관심, 여러 대형 교회에서 발생한 스캔들 등의 이유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배타적’, ‘물질주의적’, ‘위선적’,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한국 기독교를 묘사하는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교회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다. 팬데믹 동안과 이후에 주일 예배 참석률이 감소하고, 다른 사역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재정적 기부가 줄어들어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교회들도 생겨났다. 한국로잔위원회 지도부는 제4차 로잔대회가 세계 교회 앞에서 한국 교회의 선교적 성취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국의 성도들이 과거를 성찰하고 회개하며 세계 교회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태도는 대회 기간 중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발표하는 데 있어 투명하고 정직하며 겸손한 어조를 형성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한국 교회가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케이프타운 서약이 명확히 지적했듯이, ‘어떤 특정 종족이나 국가, 특정 대륙이 지상명령을 성취할 것이라는 배타적 특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CTC II-F 2).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 그분의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질그릇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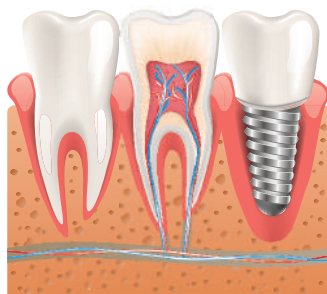
## 이제는 안심하자!

#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원장

#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 ACTION CAMP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가족, 친구, 성도분들과 멋진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Action Camp장은...



## 미국내 가장 좋은 시설여건, 서비스

- 1 교회 수련회, 단체 할인 혜택
- 2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야외 영화도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
- 3 샤워장, 공연장, 카페,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놀이터
- 4 야외 파티와 행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 5 디럭스 캐빈(Deluxe Cabin), 오토 캠핑(RV), 인디안텐트(TeePee), 텐트(Tent)장 주변에 전기, 수도, 식탁, 하수도 시설
- 6 회원의 경우 캠프사이트나 캐빈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www.actioncamp.cc](http://www.actioncamp.cc) / [larvresort.com](http://larvresort.com)



전화예약 or 온라인예약  
**T. 661-268-1214**  
7601 Soledad Canyon Rd, Acton CA 9351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소망의 하나님

# 도마는 왜 의심했을까? 베드로는 왜 부인했을까?



‘저명한 성경 공부 교재 집필가’로 소개된 캐롤린 나이트롬은 약 80권 이상의 책 중 절반 정도를 어린이를 위한 교재, <어린이를 위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과 같은 책을 썼다(IVP, 2023). 그녀는 제임스 패커와 함께 <제임스 패커의 기도>(IVP, 2008),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인도>(생명의말씀사, 2008) 등을 썼다.

이번에 IVP에서 나온 <아직, 소망이 있다: 약점투성이 인생들을 보듬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역시 패커가 전한 삼손에 관한 설교를 들은 나이트롬이 결점 많은 사람을 복 주시며 사용하시는 주권적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책이라 말할 수 있다. 참고로 제임스 패커는 소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20세기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은 대표적인 저서로 복음주의의 기독교를 견고하게 세우고 알리는 데 공헌했다(IVP, 2018).

이 책엔 하나님이 사용하신 다양한 구약과 신약의 인물이 등장한다: 삼손, 야곱, 마노아의 아내, 요나, 마르다, 도마, 시몬 베드로, 느헤미야. 총 8명의 인물들은 모두 약점투성이 인생들이라 부를 만하다. 삼손은 성적 유혹에 맥없이 무너졌다. 야곱은 편애와 차별, 질투와 시기가 넘쳐난 불행한 가정의 폐해를 입었다. 마노아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요나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불만이 가득했다.

마르다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세우고 동생과 예수님께 불만을 터뜨렸고, 도마는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지는 것만 믿겠다는 독선에서 흘러 나온 의심을 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후 소망을 완전히 상실했고, 느헤미야는 평생에 걸쳐 선포하고 사역했던 모든 수고가 수포가 되는 것을 보며 탄식했다. 패커는 각각의 약점투성이 인생들을 굉장히 예리하게

분석한다. 때로는 과감하게 성경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인물이 가진 연약함과 완약함을 정밀하게 해석해 낸다. 패커는 여러 기독교 사상과 개념을 꿰뚫고 있는 학자로서, 각 사례를 통하여 기독교 내부의 잘못된 사상들을 짚어낸다.

가령 도마에게서는 회의주의를 발견하는데, 패커는 그가 우울질을 가졌을 것 같다고 진단하고 정신적 압박감의 영향 아래 교만이 작용하여 분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단순히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의심이 생겼는지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여 해석한 것이다. 패커의 분석이 모두 다 성경이 묘사하는 인물의 정확한 모습인지에 관해 이견이 있는 독자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의 설득력 있는 진단에 긍정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물의 상황과 배경과 성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각 인물을 다룰 때 패커가 주목했던 것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주권적인 손길이다. 사실이 책을 처음 읽으면서 ‘J.I. 패커가 이런 종류의 책도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이 특별하고 그래서 좋았던 점은 패커가 독자들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이끄심을 발견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나이트롬의 교육적 마인드가 반영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여러 인물들에게서 발견되는 약점들을 자신에게서 발견할 것이고, 동시에 그들을 사용하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롭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이트롬이 공헌한 이 책의 장점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소그룹으로 함께 공부하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패커가 본문에 각 장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한 내용도 정말 은혜롭고 유익하지만, 나이트롬이 제공한 기도 가이드도 개인 또는 소그룹이 함께 읽고 토론한 내용



존 맥아더 목사. ©셰퍼드 콘퍼런스 제공

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유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약점이 없는 인생은 없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을 타고나, 스스로의 잘못과 다른 이의 영향으로 약함을 맞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실수와 허물을 덮으시며, 죄를 사하는 분이시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언제나 소망이 있다. 모든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시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선을 이루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욱 힘 있게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기를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아직, 소망이 있다

제임스 패커, 캐롤린 나이트롬 | 김기호 역 | IVP | 312쪽 | 17,000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소망의 소식!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믿는 자(believer)일 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자(hoper)이기도 합니다.” -서론 중에서

저자를 따라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책을 덮을 때쯤에는 소망과 열심의 상승 작용이 일어나며 자신의 삶에도 ‘아직,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막막한 삶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믿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책을 읽어 보길 권한다

##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함이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 계시록 3:10

Since you have kept my command to endure patiently, I will also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that is going to come on the whole world to test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REVELATION 3:10

산불피해자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 산불피해자를 돕습니다

들려오는 신음소리!  
밀려오는 메일에 침묵할 수 없어서  
산불 피해자를 돕고,  
산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산불 피해를 돕는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긍휼히 여기는  
맘을 주세요!

Sharing Bread for Soul  
**World Share USA**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World Share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절대 빈곤 아동들의 생필품을 제공하고, 교육 기회와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



박우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조명가게> (2)

# <조명가게> 구원 서사, 감동 있지만 효능감 없는 이유

### 복음 이전 무속에 대한 향수 삶의 무의미 구출 나름 해법 이승과 저승 연결한 가족에 오늘날 결여에 열망 자극도 실효성 없는 옛 구원의 방편

**무속의 저승: 가족애로 연결되는 죽은 자들의 공간**

<조명가게>는 실제 임상적 관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임상체험을 묘사하고 있다. 긴 골목 통과, 어두움 속 밝은 빛, 아늑한 집으로 복귀, 가족과 연인 등장 등은 실제 여러 병원에서 심정지 환자들이 체험하거나 꿈꿨다는 기록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그런데 <조명가게>에 묘사된 임상체험 내용에는 단 하나, 현실과 전혀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임상체험 중인 중환자들의 의식이 같은 심상의 공간(혹은 영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 <인셉션>에서 여러 사람이 침입기술을 통해 꿈을 공유하는 것처럼, <조명가게>의 등장인물들은(심지어 이미 죽은 이들까지도)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각자의 앞길을 결정한다.

여기에는 원작 웹툰 작가 강풀의 공상적 세계관이 반영돼 있다. 이 공상적 세계관의 특성은 무속의 영혼과 저승에 대한 이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안동대 문화유산학과 이용범 교수는 <한국 무속의 죽음이 해 시론>(2011)이라는 논문에서, 무속의 내세관에는 다음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존재한다고 밝힌다.

첫째,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이승의 존재에서 저승의 존재로 변화되는 일이다. 둘째, 죽은 자의 존재 변화와 지속은 가족관계의 맥락에서 이뤄진다. 죽음을 통해 이승의 가족은 저승의 가족이 될 뿐 생전의

가족관계는 변하지 않으며, 양측의 끈끈한 가족애가 유지된다면 죽은 이는 결코 외롭지 않다.

셋째, 무속의 저승관념은 복합적이다. 저승은 죽은 자가 묻히는 무덤이기도 하고, 긴 여정 끝에 도달하는 먼 공간이기도 하다. 이승과는 분명 다르지만, 이승과 단절돼 있지 않은 공간이 바로 저승이다. 그래서 저승은 이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환생을 통한 새로운 탄생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용범 교수가 정리한 무속 내세관 특성은 <조명가게>에 묘사된 임상체험자들, 그리고 임상체험 공간의 특성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첫째, 이 작품 속에서 사고와 연관돼 죽은 이들(현민의 연인 이지영, 현주의 어머니 유희, 선해의 동성연인 혜원, 사고의 주범 오승원 등)은 살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생전 기억과 의식을 갖고 인격체로 존속하고 있다. 이승의 존재에서 저승의 존재로 변했을 뿐 그들의 존재는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다.

둘째,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든 임상체험자들은 가족이나 연인과의 사랑에 힘입어 삶의 끈을 이어 나가거나 삶을 포기할 것을 결정한다. 이들 모두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가족애를 근본 동기로 삼는다는 점에서, 가족관계 덕분에 죽음이 외롭지 않다는 무속의 죽음과 영혼 이해를 적극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임상체험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골목길, 골목길 근처 집, 그리고 조명가게라는 공간은 죽음에 가깝긴 하지만 아직 살아 있는 이들, 그리고 이미 확실하게 죽은 이들이 공유하는 이승과 저승의 교차점이다.

**무속의 구원: 복음이라는 대안이 없던 시절, 삶의 구원**

이처럼 무속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조명가게>의 배경과 인물 설정은 어떤 메시지를



<조명가게> 속에 등장하는 임상체험자들의 공간은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공유하는 이승과 저승의 교차점이다. 이는 저승이 죽은 자들의 세계지만 산 자들의 세계와 중첩되거나 멀리 있지 않다는 무속의 세계관에 부합한다.

전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된 것인가? 만화 애니메이션 문화학 연구자 김대권과 박경철은 <토비아스의 메인 플롯 구성 방법을 통한 강풀의 웹툰 분석>(2015)이라는 논문에서 <조명가게>가 구출과 수수께끼 플롯을 활용해 서사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조명가게>의 임상체험자들 중 전구 빛을 받아들이는 이들(현민, 현주, 지웅)은 저승에서 이승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구출된다. 그리고 전구 빛을 받아들이기를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선해)는 사랑할 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삶을 거부함으로써 삶의 무의미함으로부터 구출된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구출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의 '레종 데트르(raison d'être, 존재의 이유)'를 지시한다. 바로 가족의 사랑 혹은 연인 간의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가게> 서사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가 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작중 현민의 생존이 결끄러움을 남기는 이유, 그리고 선해의 죽음이 시청자 입장에서 슬프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민은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연인인 지영의 마음과 헌신을 외면했다. 그러니 그의 생존은 현민에게 공허함을 가져다줄 뿐이다. 반면 선해는 스스로 죽음 속에 남기를 선택했지만, 죽은 상태로 동성연인과의 사랑을 완성했기에 존재의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극복한다. 이로써 <조명가게>는 인간 영혼을 삶의 무의미함에서 구출하는 방법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다. 그 해법은 우리 민족 전통 무속 세계관에 바탕을 둔 가족애의 재발견이다. 재난, 질병, 사고 등에 노출된 불안하고 가냘픈 인간 존재에 강인한 의지와 충만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가족애라는 것이 <조명가게>의 핵심 메시지다.

절대자·초월자에 대한 계시와 믿음을 찾

아보기 어려웠던 전근대 한반도에서 무속은 그나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초월적 힘이었다. 샤먼(shaman), 즉 무당이 행하던 점술과 굿, 초혼술은 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했던 한반도 민중에게는 원시적이고 주술적인 방식으로나마 삶의 구원을 도모하는 길이었다.

반면 구한말 개신교 선교는 구원의 복음, 근대적 계몽, 그리고 선진 의료기술을 통해 한반도 민중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살리고 돌보는 일을 맡았고 갖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확실하고 실증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이로써 한국 개신교회는 온전한 삶의 구원, 구출의 길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계명에 있고, 그의 가르침에 밑바탕을 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과 문화양식을 통해 우리 삶에 현실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래된 한민족 고유의 세계관과 문화, 그리고 종교로서의 무속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실제적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 않았을 당시 한반도 민중이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구원의 방편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한반도 개신교 선교 역사, 복음화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 이제는 무속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조명가게>의 구출, 구원 서사는 과거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영혼과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었던 흑암의 시절 의지했던 오래된 전통 종교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결여돼 있는 가족애에 대한 깊은 열망을 자극한다. 덕분에 <조명가게>의 구원 서사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다만 그 감동에 실효성은 없다. 한민족 역사상 무속이 잠정적 위로 외에 우리 삶을 진정 나아지게 만든 사례가 과연 존재하는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방편이 과거와 같이 무속밖에 없다면 상상만 해도 암담하지 않은가.



샤먼(shaman), 즉 무당이 행하던 점술과 굿, 초혼술은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했던 한반도 민중에게는 원시적인 방식으로나마 삶의 구원을 도모하는 길이었다. 물론 그 구원, 구출이라는 것이 진정 효력이 있는 것이었느냐고 물었을 때 단순히 그렇다고 답하기는 쉽지 않다.

**청빙** 주님의 빛 교회는 1998년에 오픈지카운티에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교회로서,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대 담임 목사님을 세우기 위한 동사 목사님을 청빙 하고자 합니다.

- 자격요건**
  1.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실 분
  2. 십자가의 복음 중심이며,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주님의 빛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
  3.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사도신경과 장로교의 신앙고백에 동의하고, 그 믿음으로 목양하며 이끄실 분
  4. 정규 신학대학원(M. Div.) 학위를 가지시고, KPCA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5.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
- 구비 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2. 학위증명서(M. Div.) 및 목사 안수증명서 사본
  3. 신앙 고백문 및 목회 철학
  4. 사모님 신앙 고백문 및 간단한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5. 설교 영상 2편 (1년 이내, 파일이나 온라인 주소)
  6. 추천서 2부 (추천인이 직접 pdf 파일로 이메일 발송할 것)
- 접수 및 문의**
  1. 서류 접수 및 마감 : 주후 2025년 2월 28일까지 (이메일, 카톡, 문자, 혹은 우편 접수)
  2. 접수할 곳  
revhrju@gmail.com, 전화(562)896-9191(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Lord's Light Community Church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3. 먼저 서류 심사 후, 청빙 후보 목사님들께 개별 통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참고 홈페이지 Lordlight.org, Youtube : 주님의빛교회(Lord's Light Community Church)

**주님의빛교회 청빙 위원회**

기독교일보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남침례교단 (SBC) 6대 신학교
- 북미 최대규모로 한국학생 720명 재학중
- F-1을 위한 I-20 발급/100% 온라인으로 가능
- ATS 및 HLC 정식인가/저렴한 등록금
- 신약학 철학박사 (Ph.D.)
-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 교육학 박사 (Ed.D.)
- 교육목회학 박사 (D.Ed.Min.)
-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 석사 (M.Div.)
- 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
- 성경상담학 석사 (MABC)
- 신학연구석사 (MTS)
- 워십미니스트리 (MTS-NM with 어노인팅, 아이자야씩스터원, 워십인크라이스트)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ks](http://www.mbts.edu/ks)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5001 N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 이찬수 목사 “‘유사 내전’이라 할 정도로 대립 심화”

## 나라를 위한 기도 및 기도 제목, 홈페이지 통해 소개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와 ‘나라를 위한 기도제목’을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이찬수 목사는 지난 15일 ‘지금 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7장 14-15절을 언급하면서 “지금 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때”라며 “탄핵 정국으로 불안한 현실인데, 이후 모든 상황이 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목사는 “그리고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며 “무엇보다 ‘유사 내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구도가 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권면했다.

그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격 모임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매일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며 “기도를 돕기 위해 ‘나라를 위한 기도제목’을 올려 드렸으니, 프린트해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 재료로 삼으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번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라고 글을 맺었다.

이에 성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다음은 교회에서 게재한 ‘나라를 위한 기도’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전문. 해당 기도 내용과 제목 전문은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다.

### 나라를 위한 기도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문과 기도제목을 올려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가적 혼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소서.

현 시국의 모든 과정과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

나고 어떠한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을 흔드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소견대로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게 하시고, 불의가 자리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후의 모든 상황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혼란한 상황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각 모든 영역들이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깨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어디서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 설교하던 이찬수 목사의 모습. ©유튜브

###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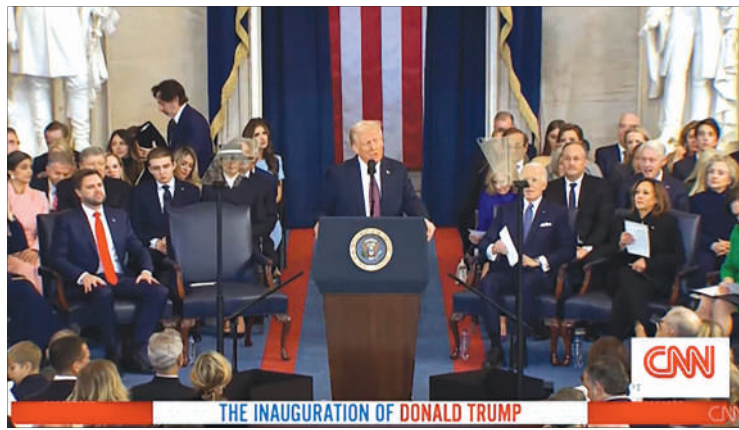
#### 1. 나라를 위한 기도

- ① 혼란한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불의와 거짓이 자리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 ②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공의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 ③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주시어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나라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 ④ 모든 상황과 과정속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 2. 교회를 위한 기도

- ①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 ② 성도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져,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어디서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  
김진영 기자

# 트럼프 대통령 “종교 자유 수호할 것”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CNN 보도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불법 이민,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트랜스 이념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캐피탈 원 아래나(Capital One Arena)에서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집회에 모인 열광적인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했다. 이 행사는 그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불과 몇 시간 전 열렸다.

트럼프는 “우리가 이겼다”고 선

언한 후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여 미국이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군중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겠다는 의도를 자세히 설명했고, 취임 첫날 이후 미국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 명령은 내가 취임 선서를 한 지 몇 시간 안에 폐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일 저녁 해가 질 무렵에는 우리 국경의 침략이 중단될 것이고, 모든 불법 국경 침입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작전”을 실시하는 것 외에도 “이민자 범죄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가족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차기 행정부의 또 다른 우선 순위로 꼽았다.

트럼프는 또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을 자신의 행정부가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념으로 지목했다. 트럼프는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이러한 이념을 없애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면서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남성’과 ‘모두를 위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한탄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의 시작과 그가 서명할 행정 명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4년을 전체적으로 낙관적으로 묘사했으며,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했다. 트럼프는 2026년 독립선언서 서명 250주년이 다가오고, 월드컵이 개최되며, 2028년 하계 올림픽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세금을 삭감하고,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 가격을 내리고, 임금을 올리고, 수천 개 공장을 원래 있던 곳인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산을 만들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행정부가 “아이들에게 미국을 사랑하고, 역사를 존중하고, 위대한 미국 국기를 항상 존중하도록 가르칠 것이며, 학교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과 트랜스젠더 광기를 몰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종교 자유를 수호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 잠언 로펌

Proverbs318Law.com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 기독교일보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

신승훈 담임목사

### WORSHIP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 (전통예배)	8:00am
주일예배 2부 (영광예배)	10:30am
주일예배 3부 (청년예배)	1:00pm
주일예배 GCEM (영어)	1:00pm
주일예배 라티노(스페인어)	5:00pm
교구모임 TEAM(20대 청년)	2:45pm
교구모임 JABEZ(30대 청년)	2:45pm
수요예배	7:30p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예배(월~토)	6:00am

###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EL: (213)749-4500  
 E-Mail: glorygcjc@gcjc.org  
 www.gcjc.org



ANC 온누리교회는  
 올해로 창립 29주년을 맞이한  
 CRC 교단 소속교회이며 LA 선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기독교일보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 JESUS LOVES YOU

온세대가 제자되어 온누리를 섬기는 복음 공동체



### Sunday Worship Services

1부(Traditional Worship)	07:30 am	본당(Main Sanctuary)
2부(Blended Worship)	09:30 am	본당(Main Sanctuary) / Youtube Live
3부(Passion Worship)	11:30 am	본당(Main Sanctuary) / Youtube Live
GM(Disabilities Worship)	09:30 am	M913
ANCC(English Worship)	09:30/11:30 am	체육관(Gym) / Youtube Live



## ANC 온누리교회

담임목사\_김태형(Rev. Tae Kim)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 www.anconnuri.com | (818) 834-7000

# 기독교일보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2025

A CHURCH OVERFLOWING WITH FAITH, HOPE, AND LOVE

#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고전 13:13]

### 주일예배 (본당)

- 1부 오전 7시 5분
  - 2부 오전 9시 5분
  - 3부 오전 11시 5분
  - 4부 젊은이예배 오후 2시
- YES 청년부(본당)  
한어대학부(KDC Hyssop Hall)

### HolyWave English Worship [킹덤드림센터(KDC)]

- 1부 오전 9시 10분
  - 2부 오전 11시 10분
- HolyWave English Worship은 믿음의 차세대들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예배입니다 [www.holywave.org](http://www.holywave.org)

### 청년·대학부

- YES 청년부: 주일 오후 2시(본당) / 금요일: 오후 8시(은혜채플/본당)
- 영어청년부(NEXT): 주일 오전 9시 10분 / 오전 11시 10분(KDC Hyssop Hall)
- 한어대학부: 주일 오후 2시(KDC Hyssop Hall)
- 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10분(은혜채플)([holywave.org/ecollege](http://holywave.org/ecollege))

교회학교 주일 2,3부 예배시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20분 / 토 오전 6시 10분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사랑부 발달장애우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112호) / 오프라인 Only

\*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Sa-Rang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노창수  
 Rev. Chang Soo Ro, Sr. Pastor

[www.sarang.com](http://www.sarang.com)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Tel: (714) 772-7777 | E-Mail: office@sarang.com  
 교육관/킹덤드림센터(KDC): 190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 | Tel: (714) 563-2422